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밝은사람들, 19일 제10회 학술연찬회에서 '죽음'을 화두로 꺼내 들어

"매일 매일을 오늘이 너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면 어느 날엔가는 그것이 진실이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던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만일 대답이 '아니오'라면 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처럼 삶의 종착역인 죽음은 인류 공통의 변뇌이지만 그 자체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나, 버릴 것인가 갖을 것인가' 등 독특한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해 온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가 제10회 학술연찬회를 '죽음'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주제로 11월 19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헌장에서 열리는 10회 학

술연찬회에는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초기불교, 안성희 교수(서울대)가 대승불교, 황금연 교수(동국대)가 선불교를 중심으로 불교의 죽음관을 고찰한다.

이와 함께 박찬욱 교수(서울대)가 서양 철학, 우회종 교수(서울대)가 생명과학을 주제로 현대 서양사회와 현대문명 속의 죽음관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특히 이번 학술연찬회는 죽음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정립하고 이를 새로운 삶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취지가 더욱 높기를 끈다. 각 발제자들은 경전 등 사료에 근거한 죽음관의 변천을 살피는 한편 당시 사회의 변화를 함께 조명한다.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는 것은 인류를 넘어 모든 생명이 지닌 공통의 과제다. 부처님은 모든 고뇌 속에서 죽음에 대하여 무한한 고심을 했는데 이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의경심으로 드러난다. 불교의 '오계' 중 첫 계율이 불살생인 것은 죽



2009년 열린 밝은사람들연구소 학술연찬회 모습

음이나 바로 삶과 연관돼있는 가장 밀접한 불교 근원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각 발제자들은 불교로 인한 죽음관의 변천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통해 현대인들의 죽음관과 그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민해 본다.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호스피스·웰빙 문화 확산의 사회 조류와도 맞닿아 있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장은 "죽음은 그 자체로 생명의 치열한 삶이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며 "불교 내부의 죽음관 고찰을 통해 삶의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제된 논문은 11월 초 게재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불교와 다른 종교의 소통 가능성 진단

한국불교학회, 11월 19일 동국대서 추계학술대회

불교와 한국종교의 대화의 가능성과 종교평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19일 오전 10시 동국대 문화관 학명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와 한국종교의 대화'란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선 김용표 회장의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이재영 선문대 교수가 '불교와 신종교와의 대화'를, 김남희 서강대 교수가 '불교와 증산교와의 대화'를, 유은우 동국대 교수가 '불교와 유교의 대화'를, 최희석 금강대 교수가 '불교와 도교와의 대화'를, 장진영 금강대 교수가 '불교와 원불교와의 대화'를 각각 발표한다.

이와 함께 자유발표에는 김말환 동국대 박사가 '노인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 효과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이 발표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경주 사천왕사지서 통일신라 '돌다리' 발굴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10월 26일 사적 제8호인 경주 사천왕사지 학술발굴조사 중 사역의 남쪽 귀부(龜趺) 주변에서 소형 배수로 위에 설치된 통일신라시대의 석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주 사천왕사지는 경주 남산(狼山)의 남쪽에 세워진 통일신라 초기의 호국 사찰로 쌍탑 배치가 처음 등장한 곳으로 2006년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천왕사지 석교는 조선시대 건물의 하층에 앞서 축조된 배수로(폭 60cm, 깊이 50cm 내외) 위의 동서 양편 2개소에 있으

며 아치형을 이루고 있는 작은 돌다리이다. 중문지에서 남쪽으로 40m 지점의 양편 약 3.6m 거리에 각각 만들어져 있다.

석교는 평교(일명 보다리) 형식으로 귀틀석, 청판석, 엄지기둥으로 구성된 너비 290cm, 길이 120cm의 규모로 너비가 큰 모습이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발굴 결과 사천왕사지에서 확인된 형태의 석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 앞으로 석교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학술단신

동국대 중학학, 수행결사 주제 학술대회

동국대 중학연구소(소장 조호)는 11월 7일 오후 2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수행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 1부 행사에서는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자성과 색신의 결사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며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범인 스님과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삶을 주제로 한 수행'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 2부 행사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발제하며 윤승룡 종교문화연구소 소장 조계종 교수아사리 명법 스님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02)2260-8512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찬불가' 주제 학술대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김용환)는 11월 5일 부산 남산동 안국선원에서 제12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불교 찬불가의 역사와 전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선 후쿠모토 야스유키 정토진종 서본원사파 교학전도센터장이 '근대불교 전교(傳敎)의 양악(洋樂) 수용과 그 과제' 가오 아리 대만국립교통대학 음악연구소 소장이 '전후 대만 창작 불교음악의 발전과 변천' 이미향 동국대 교수가 '근현대 한국 찬불가의 성립과 발전' 윤소희 부산대 교수가 '한국 불교음악의 전통과 미래'를 각각 발표한다. (051)583-0993 노덕현 기자

불자·기독자 교수들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회장 이정배)와 공동으로 11월 4일 오후 2시 서울 법원사에서 제6회 불자·기독자 교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믿음과 수행, 그 접점을 찾아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선 정재현 연세대 교수가 '믿음과 삶-기독교에서 수행이 지니는 뜻과 더불어', 최현민 종교대학 씨련연구원이 '그리스도교의 청빈서원에 대한 고찰', 김도공 원광대 교수가 '순역 경계 속의 수행방법론'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가 '불교의 수행: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각각 발표한다. (02)720-6618 노덕현 기자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1)

종교다원주의에 근거한 '아쇼카 선언'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8월 23일 발표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초안)과 관련해 필자는 네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 화쟁위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선언의 일부를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근본적으로 잘못 적용한 연기법과 종교다원주의를 근거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이나 댓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선언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열린 진리관'이나 '전법의 원칙'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선언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는가? 한마디로 종교다원주의를 근거로 작성된 '열린 진리관'은 불교의 근본교설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법의 원칙'은 '전법포기의 선언'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이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미 용도 폐기된 종교다원주의를 근거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필자는 두 번째 글에서 종교다원주의의 함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불교닷컴의 이은 기자의 세차례에 걸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오해' 연재를 비롯해 계속적으로 종교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종교다원주의의 위험성을 파헤쳐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불자들은 종교다원주의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21세기 아쇼카 선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980년대 다원주의 종교신학을 주도한 대표적인 신학자는 존 히크(John Hick), 폴 니터(Paul F. Knitter), 스탠리 사마르타(Stanley J. Samartha), 레이몬드 파니카(Ramond Panikkar) 등이다. 이들은 모든 종교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신(The Reality)을 경험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종교관습과 가르침은 하

나의 신에 대한 다양한 반응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또, 기독교가 타종교와의 공존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신(神) 중심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종교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른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존 히크는 칸트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세계 종교전통을 조율해 '하나의 궁극적 실재', 즉 무한하고 신비로운 힘을 지닌 신적(神的) 실재가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하나의 영, 하나의 신적 실재, 혹은 하나의 절대자, 하나의 로고스가 존재하되, 역사적·문화적 혹은 심리학적 맥락에 따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계사적인 종교 경험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해 왔으며, 그것은 모든 동일한 실재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응답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어떤 종교든 각각 그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같다고 말한다. 즉 '궁극적 실재(Ultimate Reality)'는 하나라는 것이다. 마치 산의 정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지만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존 히크의 사상적 근거에는 유일신 개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하나의 궁극적 실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한다.

같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자인 폴 니터는 존 히크의 '실재(the Real)'에 대한 유일신론적 해석이 불교 종교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은 기자는 불교닷컴의 9월 15일자 보도에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신중심적 모델은 유일신론적 전통에 속한 종교에서는 통용될 수 있으나, 불교나 도교, 유교의 경우처럼 초월적 인격신의 관념을 가지지 않는 종교 전통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준다"고 했다.

그러나 조계종 화쟁위에서 발표한 '21세기 아쇼카 선언'은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마성 스님(말리문화연구원소장)

천부경 6의 비밀-운명과학으로 풀어내는 <新학문>

신비의 예지법 강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동시개강)

- 운명, 운세, 인연법을 동시에 해결, 기준상당 모든 분야
- 평생운, 해운(단기운), 년운(일년신수), 월운 까지
- 택일 - 결혼, 이사, 행사, 계약절기 수술일자, 묘이자
- 궁합 - 운세궁합, 인연궁합, 운명궁합도 함께 풀이
- 진로상담 - 공부, 학업, 전공, 대학, 직장, 취업상담법
- 장사 & 사업 - 장수, 인연, 업종, 개업시기, 장사운
- 체질 & 건강 - 5기체질론에 의한 발병원인, 식이요법까지
- 개운상담법 - 어려움을 해결하여, 신비의 개운법
- 개운기도법 - 개운의 비법, 개운행사법, 특수수련법 등

<특수 교육강좌>

- ◆ 천부경 성명학 & 작명법(10주)
- ◆ 천부경 타로카드 상담법(3주)
- ◆ 천부경 운세감정법(10주)
- ◆ 천부경 숫자풀이법 인연법(10주)
- ◆ 천부경 진로상담법(장사/사업)

타로카드 강좌 <DVD 발매>

- 30만원 (2장/set) (타로카드 포함)
- 천부경 운명과학회 하나은행 (629-910035-12505)
- 각교육원, 카페신청

☐ 서울·부산교육원 (010)-9171-3001
☐ 대전교육원 (010)-6476-1021
☐ 대구교육원 (010)-6251-5776

천부경 6의 비밀 - http://cafe.daum.net/cheonbu6

研究 및 受講生 모집

東醫寶鑑 方藥合編. 藥草學

강 의 합 니 다

(스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한약 효능 안내

기효만령단 (奇效萬靈丹)	고혈압, 중풍, 당뇨병, 관절신경통, 견비통, 요통, 근육통, 골절통, 편두통, 좌골신경통, 자궁근종, 안면신경마비증, 수족신경마비증, 일체담증, 수족냉각증, 산후풍증, 중이염, 골수염, 고환염, 말초신경염, 여드름, 치질, 치루, 통풍, 약성피부질환, 소화불량, 양기부족 등
안중산(安中散)	위궤양, 위염, 십이지장궤양, 궤양성 대장염
창이환(蒼耳丸)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호마산(胡麻散)	백전풍, 배나병, 백반증
익수환(益壽丸)	당뇨, 경련, 빈뇨, 전립선염, 방광염
청보환(淸補丸)	신종플루, 해수, 천식, 기침, 기관지염, 감기
생간건비탕(生肝健脾湯)	간염, 간경화, 간암, 지방간, 황달
소풍산(消風散)	이명, 보약, 두목, 혼현, 비색, 부인혈풍두양
청심연자음(淸心蓮子飲)	심장 신장 기능 강화, 요실금, 오줌소태, 전립선염
신효과루산(神效瓜露散)	유방암, 유선염
팔진탕(八珍湯)	임신구토, 임신빈혈
귀비온담천마탕(歸脾溫膽天麻湯)	현훈(眩暈), 어지러움증, 불면증, 신경쇠약
총명익기탕(淸明益氣湯)	안혼(眼昏), 이명(耳鳴), 이농(耳膿), 정신상해, 식욕증진, 오로질상 허손(五勞七傷 虛損), 간상(肝傷), 치매, 냉누출(冷淚出), 양기부족
항암식품(抗癌食品)	오백산(五白散), 강유탕(糖楡湯)

(참고문헌: 東醫寶鑑)

문의: 慈悲會 02)722-4848 / 010-2538-7789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대출안내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 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1 사찰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 2 이사장(前 재요구 분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은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후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보현사신협

보현은행 보현사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